

북

Books

‘푸른 눈 이방인’이 쓴 5천년 한국사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 1·2

호머 헐버트 지음

역사의 객관적 서술이 과연 가능한가의 논쟁은 아마 ‘역사 자체’만큼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역사가 자신이 그 역사의 일부로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 한, 객관적 서술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긴 한국사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숱한 사건들을 이방인, 제3자의 시각으로 서술한 저술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고종의 외교 자문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1863~1949)박사가 100년 전에 영어로 쓴 ‘한국사’가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 1, 2권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헐버트 박사는 1886년 영어교사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한국에 극장한 관



심을 쓴았던 인물로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자신이 창간한 잡지 ‘한국령론’에 고조선시대부터 러일전쟁까지 한국사를 연재했고, 그것을 다시 ‘한국사’(원제 : The History of Korea, 1, 2)라는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이 그의 사후 60년이 지나 비로소 우리말로 옮겨진 것이다.

책은 저자가 머리맡에서 밝혔듯이, 고조선부터 시작해 격동의 근대 조선에 이르는 5천여 년의 한국사를 방대한 사료와 구한말 문인들의 도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들고 본 증거를 토대로 완성했다.

1권에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조선 선조 때 일어난 임진왜란 초기까지의 역사가, 2권에는 임진왜란 중기부터 청나리와의 두 차례 전쟁(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영·정조의 정치·문화적 개혁기, 그리고 1904년의 러일전쟁까지의 역사가 왕조 순, 순조로 소리발로 옮겨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서구 이방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실증을 통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술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들의 뒷면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의미 있는 관찰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책에는 고조선시대의 강역설정,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의병과 이순신장군의 진면목,

병자호란 막바지에 삼전도 굴욕을 앞두고 조선 왕실과 청 진지 사이에 긴박하게 오간 서신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히로시마 법정의 판결문’ 전문 등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중요하고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 책은 우리가 익히 있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건들을 사료를 바탕으로 소설처럼 서술해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병자호란 막바지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른바 ‘항복의식’을 묘사한 부분은 한 슬픈 역사드라마의 대단원을 보는 듯하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러일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제물포 해전을 묘사한 대목은 한 편의 전쟁영화를 보는 듯하다는 평이다.

이처럼 책은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학자로서의 자세와 재미와 감동을 섞는 문인의 기질이 결합돼 빛나는 역작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저자는 마무리 글로 한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하나같이 개인적 목표 추구에 권력을 사용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도 적고 있는데 그의 평은 오늘날에도 곱씹어 볼 만한 것들이다.

〈리베르·각권 1만6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둘기명으로 걸어간 낙타=구상 시인의 딸이며 소설가 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구자명씨의 문화비평 애세이집,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느낀 단상을 담은 글과 각종 지면을 통해 발표한 산문 50편이 수록됐다. 특히 올해로 5주기를 맞는 아버지 구상 시인과의 추억을 담은 글도 포함됐다. 〈우리길·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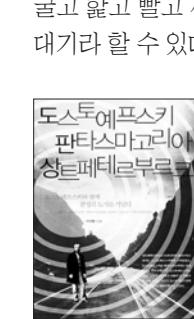
▲승정원일기·소통의 정치를 논하다=조선시대 왕의 비서실, 승정원에서 작성한 속기록 ‘승정원 일기’를 쉽게 풀어쓴 것으로 일기에 담겨 있는 왕의 모습, 국정의 이모저모, 양반이나 상놈들의 풍속 등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사회상, 기아나 노인에 대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왕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에 다큐멘터리를 병불케 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신차림·1만8천원〉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11=국내 여행작가들의 모임인 (사)한국여행작가협회가 새로운 여행트렌드인 ‘걷기 여행’을 알리기 위해 펴낸 종합 안내서. 회원 27명이 참여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111곳 코스를 골라 거리·소요시간·지도는 물론 주변 관광명소·음식점과 숙박지 등 실용정보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월번째행성·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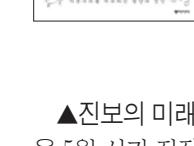
▲어느 집법에 대한 수사 보고=노동자 출신 시인 겸 소설가 유옹주(50)씨가 8년만에 펴낸 신작 장편소설. 전작 ‘마린을 찾으러’가 열네 살부터 이십대 초반까지 “남들 입고 놀고 자고 쉬는 시간에 맞고 일하고 참고 외웠던” 소년시절을 그려낸 성장소설이었다면, 이번 신작은 군대 시절부터 삼십대 중반까지 그가 “세상의 밑밥을 맹굴고 핥고 빨고 깨고 피투성이가 되어 일은” 잡짜 짜이에 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다. 〈한겨레출판·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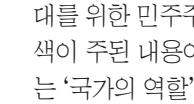
▲도스토예프스키 판타스마고리아 상트페테르부르크=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주제로 한 도시 문학. 러시아 문학 전공자나 소설가인 이덕형 교수(성균관대)는 이 도시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베나마이 그의 미완성 저작인 ‘파사센베르크’에서 떠난 ‘판타스마고리아’(자본주의 아래 모더니티가 가장 잘 구현된 곳, 사용 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선하는 상품 자본주의의 성소)라는 개념을 통해 통찰한다. 〈산책자·2만7천원〉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이상호 MBC 기자가 6년간 구당 김남수 응의 침·뜸 여정을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구당 선생의 침뜸에 대한 철학과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는 침사 자격증은 있지만 만 드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의 사학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영업정지를 당했고, 현재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동아시아·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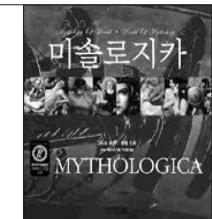


▲진보의 미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뇌溢 이후 을 5월 서거 직전까지 쓴 자필 원고와 육성 기록을 모은 책.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란 부제처럼 민주주의와 진보에 대한 모색이 주된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험원고를 그대로 수록한 1부는 ‘국가의 역할’·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시민의 역할’ 등 시대의 허두를 다뤘다. 〈동녘·1만6천800원〉



미술로지카 1·2

마이클 가든 외 지음



세계 각국의 신화·전설 총망라 ‘신화 백과사전’

신화는 수천년전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누렸던 ‘반지의 제왕’은 독일과 핀란드 신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 만들어진 작품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총망라한 책이 출간됐다.

마이클 가든(퀸즐랜드 대종교학과) 교수 등 전세계 신화 전문가 20여명이 필자로 참여한 ‘미술로지카 1·2’(Mythologica)는 친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오세아니아 신화까지 전 세계 모든 신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 백과 사전’이다.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출판사 ‘생각의 나무’가 발간한 ‘미술로지카’는 일단 책의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28cm×31cm의 대형 판형에 450여 페이지 올컬러로 제작된 책은 번역에서 출간까지 6년을 준비한 출판사의 공력이 그대로 느껴진다.

1권은 ‘그리스 로마·유럽 신화’를 부제로 달고 있다. ‘모든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인 신화가 갖는 의미와 목적 등을 다른 서문을 시작으로 캘트와 아일랜드 신화, 게르만과 북유럽의 신화, 슬라브의 신화, 아서왕의 신화, 로맨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2권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아메리카’를 다루고 있다.

파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인도·중국·일본·티베트의 신화,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오리족의 신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집필진들은 각 지역의 신화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

에서 그치지 않고 고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소개하고 동시에 각 지역에 전해지는 개별 신화의 의미와 역할까지 상세히 설명, 독자들이 고대사(史)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글도 좋지만, 신화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도판들이 압권이다.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개인 소장품까지 총망라한 회화·조각·건축·공예품·지도 등 800여점의 희귀 도판은 한장 한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일반 책 보다 훨씬 큰 판형 덕에 도판 하나 하나가 생생히 손에 잡힐 듯하다. 〈생각의 나무·각권 9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종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현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특성재설정 010-8308-8443

공장/토지 손해액분석 010-8811-2817

부산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종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

2만5천명 프로필

재외동포
와 북한 인
물을 포함
해 국내외
각 계 각 층
인사 2만5
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2010 한국인물사전’이 출
간됐다.

연합뉴스가 펴낸 ‘한국인물
사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계 등 국내 각 분야 주요 인
사들의 인물 정보를 사진과 함
께 수록한 국내 최대의 인물사
전이다.

특히 2010년도 판에는 국내
종합언론매체로는 처음으로 재
외동포 인물들을 수록, 국제무
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인
사와 차세대 등포 지도자 등 1
천여 명의 인물 정보를 추가해
사진과 함께 담았다.

〈연합뉴스·18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외 주요 인사

2만5천명

프로필

2010

한국인물사전

2010

한국인물사전